

겨레의 마음속에 빛나는 영상



이 사진은 주제46(1957)년 8월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 강서군 태성리(당시)선거장을 찾으시어 한 할머니를 만나시고 찍으신 사진이다. 그때 그 로인은 어버이수령님께 얼굴이 많이 축근것 같은데 너무 근심하지 마시라고, 이제는 다 잘살게 되었으니 넘려마시라고, 우리는 수령님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리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그후 태성할머니가 한 이 말을 늘 회고하시면서 우리는 이 할머니의 말을 듣고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하시었다.

한 할머니의 이 소박한 말은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는 위대한 수령님을 이 세상 끝까지 따르려는 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일제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벌써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간직하신 수령님께서 하나의 정책을 작성하시어든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담으시고 그것을 가장 우월한 시책으로 펼치시었다.

하기에 인민들은 언제나 수령님만을 굳게 믿고 이 세상 천지공과가 다퉈와도 오직 수령님만을 따라 일념으로 가슴붙태우며 애국의 한결을 걸어왔다.

평도자는 인민을 위하여 인민은 평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이 혼연일체의 미풍은 이처럼 오랜 역사를 가지고 날로 더 높이 발휘되어왔으며 바로 여기에 공화국의 불패성과 모든 승리의 열쇠가 있다.

본사기자

민족의 어버이, 통일의 태양

전후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이 땅에서 전쟁의 포화가 멎은 후 온 민족앞에는 의연히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할 지상의 과업이 나서고있었다.

외세와 그에 추종한 남조선의 매국배주세력은 전쟁의 포성이 멎은 첫날부터 《무력만이 조선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북침소동에 열을 올렸으며 신행무기와 병력수를 대폭 늘이고 군사분계선일대에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나라의 분렬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정전직후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전후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과업을 밝히시었다. 그것은 민주주의적에국력량이 단결하여 조국의 평화적통일 실현에 총력하여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켜 조선문제를 조선사람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전쟁의 방법오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북과 남이 협상의 방법으로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었다.

주석께서는 그후 북남협상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시었다.

주제43(1954)년 10월 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제1기 제8차회의에서 남조선의 《국회》와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 각계층 인사들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들과 일본, 미

국 등지에 있는 해외동포들에게 북과 남의 협상을 제의하는 호소문을 보내었다.

특히 주제45(1956)년 4월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는 전체 인민들에게 보내는 선언문을 발표하여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이 제안은 나라안팎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평화적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외세와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은 공화국의 정당한 제안을 거부하고 선언문을 지지하는 정당이냐 개별적사람들에 대한 압력과 위협공갈책동을 악랄하게 벌였다.

이러한 정세에서 위대한 주석께서는 분렬세력의 반통일책동과 새 전쟁도발책동을 저지시키고 평화적조국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안을 련이어 내놓으시었다.

그이께서는 8.15해방 10돐 경축대회에서 하신 보고와 주제46(1957)년 9월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연설에서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며 북과 남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고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데 대한 협정을 맺으며 북과 남사이의 자유로운 래왕과 통신거래, 경제와 문화교류, 정당, 사회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를의 접촉을 이룩하며 통일문제를 도의할 실제적인 대책을 취할수 있는 상설위원회를 내오도록 할데 대한 적극적인 방안들을 내놓으시었다.

변천하는 내외정세의 요구에 맞게 통일방안들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신 주석의 뜻을 따라 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향하여 북과 합작할 것을 바라는 남조선의 통일애국력량과의 합작을 실현하는 문제와 북과 남의 군비축소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을 가질것을 제의하는 편지를 남조선의 사회계에 보냈다.

위대한 주석의 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해 마련된 모든 주동적인 발기들과 방안들은 민족의 절절한 념원과 의사를 담은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이며 현실가능한 방안들이었다.

그나날 외세와 남조선의 분렬세력들은 《북진통일》을 주장하였지만 공화국의 통일제안은 내외의 절속적인 지지찬동을 받았고 그의 조속한 실현을 요구하는 북과 남, 남조선에서의 대중적인 반 《정부》투쟁과 통일애국열기에 의해 남조선당국의 반인민적정책과 《북진》소동은 파산을 면치 못했으나 외세와 야합한 반통일세력은 기만적인 《선견실후통일》을 운운하면서 인민들의 통일지향에 역행했다.

남조선에서의 사태발전을 통찰하신 주석께서는 1960년 8월 조국통일을 반드시 자주적으로, 어떠한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주주의적기초우에서 자유로운 북남통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대해 밝히시고 그 파도적대책으로서 북남조선의 련방

본사기자 명금룡

하나의 자연경치를 두시기도

주제46(1957)년 10월 어느날이었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 금강산을 돌아본 재북인사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었다.

그들을 일별하시며 금강산을 구경할 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없었는지도 알아보시고 금강산을 구경한 그들의 소감도 주의깊게 들으셨다.

수령님께서 이속고 금강산의 특유한 4계절경관에 대해 들려주시었다.

그이께서는 금강산구경을 가을에 하는것이 제일 좋다고 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4계절가운데서 이 시기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을뿐 아니라 단풍으로 물들고 벽

계수 흐르는 수려한 경치를 보여주기때문이라고, 봄철의 금강산은 기묘한 봉우리들과 계곡들에서 만가지 식물들이 울긋고 온갖 꽃들이 만발하여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가 하면 여름철의 금강산은 수많은 봉우리와 기암절벽들을 휘감은 환기류와 울창한 녹음, 아득한 절벽으로 날아떨어지는 장쾌한 폭포들이 어울려 절경을 이루며 겨울철의 금강산은 온 천지가 흰눈과 얼음으로 덮이고 추암절벽이 드러난 특이한 경치를 펼쳐준다고 하시면서 금강산은 4계절에 다 가보아야 구경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조선사람으로서의 민족적 긍지감도 더 높아지고 아름다운 금강산을 지켜싸워야 하겠다는 각오도 생겼다고 하시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지 금강산구경을 또 하고싶은 흥분이 파도를 일으키는데 수령님께서 그들을 둘러보시며 남조선인민들은 조국의 분렬로 인하여 금강산에 와보지 못하고있다고, 이것은 매우 가슴아픈 일이라고 안색을 흐리시며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진정한 애국자가 되려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고 하시었다.

본사기자

몇해전 6월 어느날이었다.

이속고 농장의 책임일군과 이야기를 나누시던 그이께서는 동봉협동농장이

이속고 농장의 책임일군과 이야기를 나누시던 그이께서는 동봉협동농장이

하고, 농사를 잘 지어놓고 가을나들이를 가져다 하시었다.

농사가 잘되는 별방지와 경쟁을 하면 그만 큼 동해안농사에서 도 비약이 일어나게 되며 그렇게 되면 나라의 전반적농사형편이 좋아져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라는 확신이 어련의 미심장한 말씀이었다.

본사기자

남조선인테레트신문 《자주민주》는 북의 민족주의에 대한 견해와 동정을 담은 글을 실었다.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김일성주석이 차광수와 두번째로 만나 민족주의에 대해 나눈 대화를 보면 민족주의에 대한 김일성주석의 믿음이 매우 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2002년에 발표한 《민족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데 대하여》라는 담화는 민족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였는지를 전면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담화에서 가장 눈에 띄우는 대목은 김일성주석께서 공산주의자가 되려면 진정한 민족주의자가 되려면 민족주의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로 된다.

북에서는 개인의 자주성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의 자주성을 더 중시하고있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정주영전 현대그룹회장을 따듯이 만나시고 현정은과 그의 딸까지도 가까이

이웃과 사회, 나라와 인류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사람들속에는 민족주의자들도 있었다.

참다운 민족주의를 높이 평가한 김일성주석은 민족주의가 출발할 때는 애국, 애민적이었고 진보적이었고 회고록에서 밝혔다.

결국 력사는 민족주의가 진보되며 배척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보적인 사회를 추동해는 측면도 적지 않다는것이 엄연한 사실임을 분명히 말해주고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한 부분이다.

이것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진정한 민족주의를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으로 된다.

북에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로작이 변함없이 들고나갈 철대적기준으로 되고있고 또 나의 김일성주석이 홍명희나 김구, 최홍희, 최덕신과 같은 사람들을 선뜻 포섭한것만 보아도 참다운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김일성주석과

이 불러 정몽헌회장의 뜻을 이어 민족을 위한 기업인이 되라고 격려하신것도 민족주의에 대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값높은 평가와 사람의 자주성에 대한 믿음때문이다.

남쪽의 주민들은 물론 대기업총수들까지도 민족적량심만 가지고있다면 그들과도 굳게 손을 잡고 무한한 김일성주석의 통일조국의 미래를 논의할수 있다는것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이다.》

본사기자

《애국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이다》

진정한 애국은 실천에서 발현된다는 의미가 명언에 담겨져있다.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만으로는 나라를 사랑한다고 할수 없다.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애국적인 행동을 하는것이 나라와 민족앞에 서는 애국자의 옳은 자세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애국이란 말씀에는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사랑한다는 심오한 뜻이 담겨져있다고 하시면서 진정으로 애국을 하려면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애국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고,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서는 말로 대답할것이 아니라 몸을 내대야 한다고 하시었다.

사람들이 열렬한 애국심을 가지고 땀을 흘린것만큼 나라가 강해지고 민족의 앞날이 밝아진다.

지난 항일대전의 나날 15성상 백두대령에서 풍찬로 숙하며 일제를 물리치고 조국해방위업실현에 공헌한 항

《애국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이다》

일선렬들, 해방후 새 조국건설과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 등 조국수호와 번영을 위해 고귀한 피와 땀을 바친 유명무명의 애국자들의 희생적인 삶과 헌신이 바로 그를 실증해주고있다.

외세의 끊임없는 도전과 대결책동속에서도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며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으로 솟아오른 공화국의 힘나는 현실은 인민들의 열렬한 조국애가 낳은 력사의 기적이다.

정치와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는 오늘의 강성국가건설은 전체 인민의 비상한 애국충정에 의해 실현되는 전인민적인 애국위업이다.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삶의 목표이고 보람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이의 헌신은 조국애의 위대한 구상으로 되고있다.

그이께서는 지난 2009년에 만든 10만여리의 로정을 이으며 함경남북도와 평안남북도, 자강도와 황해북도 등지의 무려 200여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어 강성국가건설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셨습니다.

그해 2월 라남과 만포, 회령과 원산의 공장, 기업소 등 많은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신 장군님께서 무산광산련합기업소를 찾으신 날에는 기온이 영하 20℃였다.

그날을 생각하시며 장군님께서 철산봉의 날씨가 여간 사납지 않더라고 무릎을 두드리며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이께서 웃음날, 마른날 가림없이 이어가시는 현지지도의 장정은 말그대로 조강도강행군이다.

그이의 헌신적인 로고에 대해 중국의 한 언론은 조선의 김정일평도자는 인민의 《호주》라고 할수 있다, 그분께서는 새로운 대교조를 위해 200여개 단위를 현지지도하셨다고 전했다.

그나날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생, 애국에 대해 강조하시면서 조국과 애국자들 사이의 관계와 거목과 뿌리 사이의 관계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조국이라는 거목이 어떤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승장구하며 부강번영하자면 뿌리와 같은 애국자들이 많아야 한다, 든든한 뿌리가 없이 나무가 거목으로 성장할수 없듯이 조국도 뿌리와 같은 애국자들이 없으면 강성변영할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회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하여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불수 있는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구호는 평도자와 인민이 애국의 한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강성국가를 건설하고있는 조선의 기상과 모습을 반영하고있는것이다.

로, 10경에서 11경, 12경으로...

조국애에 펼쳐지는 선군절경과 같은 세기적변혁은 평도자의 무한한 애국헌신과 인민의 순결한 애국충정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최근 로씨야 이따르-파스 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주실 때에도 우리 인민을 하루빨리 남북통일하게 잘살게 하려는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고 이를 현실로 꽃피우려는 길에서 우리 인민과 고락을 함께 하며 정력적으로 사업하는것이 자신의 가장 큰 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이의 말씀에는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것을 자신의 인생관으로 삼으시고 나라의 번영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온넉을 강그리 바치시는 절세의 애국자의 무한한 열정과 헌신의 세계가 비껴있는것이다.

평도자의 끝없는 애국에민헌신과 전민의 하나같은 애국충정에 의해 이 땅에 강성국가의 대문이 열릴 그날이 다가오고있다.

라기환



양어업의 최첨단을 돌파한 선군 12경

인민을 위한 명당입니다

나는 오늘도 손자와 함께 대동강반에 또 하나의 인민사랑의 전설을 수놓아가고있는 만수대지구건설장을 다녀왔습니다.

30층, 40층, 45층의 살림집들이 시간을 주름잡으며 초고속으로 일떠서는 만수대지구건설장, 선군조선의 정신과 기상, 의지와 힘이 하나의 거대한 불덩어리로 일어번지는 대격전장...

절경으로 자랑높은 평양의 중심부에 솟아오르고있는 이 거리는 민족의 대경사인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으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께 드리는 최대의 경의이며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시는 크나큰 선물입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부자들을 위한 호화거리는 많아도 명실공히 인민을 위한 이런 현대적인 호화거리는 그 어디에도 없을것입니다.

이 땅에서 으뜸가는 명당터에 눈부시게 일떠서고있는 웅장 화려한 인민의 리상거리를 매일과 같이 직접 보면서 저는 가슴속에 추추치는 류다른 감회를 누물길 없어 붓을 들었습니다.

1

사람들은 흔히 산수수려하고 살기 좋으며 온갖 조건이 최상으로 갖추어져있는 가장 훌륭한 자리를 명당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산이 좋고 물이 맑으며 경계가 뛰어난 명당들은 의례히 전설도 많고 기이한 이야기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 봅니다.

땅은 넓어도 명당은 그리 많지 않아 그것을 독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졌고 결국 명당의 주인도 권력과 재산에 비례하여오게 되었습니다.

하기에 제가 알고있는 세계의 손꼽히는 명당들에서 인민의 이름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특권층의 점유물로 되어왔던 그 명당자리가 인민이라는 부름과 함께 나란히 불리우게 된 희한한 전변이 우리 공화국의 곳곳에서 일어났으니 나는 일찌기 전제가 한창이던 시기부터 그 위대한 변천과정을 가까이에서 직접 체험하였던 한사람입니다.

남조선에서 의용군으로 입대하여 공화국의 품에 안긴 나의 평범한 인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욱을 새겨준 만수대지구는 절승경개로 이름높은 평양에서도 명당층의 명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뒤로는 풍치수려한 모란봉과 남산재, 장대재가 병풍처럼 둘러서고 앞으로는 물맑은 대동강과 넓은 동대원벌이 펼쳐진 이 지구는 고려시기의 이름난 시인 김항원도 《긴 성벽기슭으로는 강물이 도도히 흐르고 넓은 벌 동쪽에는 점점이 산이 있네》라는 시구 절박에 찾지 못하고 울어버릴 정도로 평양의 일만경개의 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평양8경가운데 《을밀산춘》, 《부벽완월》, 《영명십승》, 《련당청우》, 《보통송객》의 경치가 모두 이 일대와 관련되어있으며 관서8경의 하나로 손꼽혀온 련당정도 대동강우에 자기의 우아한 자태를 드러내듯 명당의 풍치를 돋구어주고있습니다.

하여 예로부터 이곳에는 예련당, 영명사, 승평정 등 량반부자들의 사치와 향락을 위한 건물들만 들어앉게 되었고 지금의 유투관자리는 8도강산의 손꼽히는 유중지로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극소수 특권층속들이 사치와 향락을 뽐내대는 놀이터로 독차지해온 이곳이 인민을 위한 행복의 명당으로 바뀌게 된것은 해방의 첫 기술에서 백두산위인들의 발자취가 뜨겁게 찍힌 그때부터였다고 합니다.

해방후 두번째로 맞은 어느 봄날 백두산위인들께서 대동강반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언덕에 오르신것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아드님의 손목을 꼭 잡으시고 평양의 력사에 대해 이야기 해주시면서 앞으로 이 땅우에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새 도시를 건설해나가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고 합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도 어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아름다운 대동강반에 앞으로 인민들이 쓰고살 다층살림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새 거리를 일떠세워야 한다고 당부하시었다고 합니다.

이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앞으로 여기에 인민들이 쓰고살 30층, 40층... 100층짜리 큰집을 짓겠다고 힘차게 대답하시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해방조국의 봄날에 벌써 백두산위인들이 펼쳐주신 그 휘황한 명당의 전경도는 만단사연속에 전쟁의 폐허를 뚫고 수도 평양에 용자를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의용군에 탄원하였던 내가 불비썬아지는 락동강과 전략적인 일시적후퇴, 재진격의 길을 거쳐 당시 평양의 경상동일대에 자리잡고있던 땅크구분대에 소속된것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봄이었습니다.

적들과의 치열한 전투속에 해가 저물고 새날이 밝아오던 잊지 못할 그 봄날 나는 참으로 놀라운 소식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치책에 있는 평양의 모란봉지구장에서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에 대한 전람회가 열리었다는것이였습니다.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께서 작전도우에 화살표를 그으시던 붉은색인필로 손수 평양시의 료곽을 그리시고 광장, 도로망, 주요시설들의 위치들을 하나하나 그려넣으시면서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를 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밝혀주시었다는 방송원의 격동적인 목소리가 지금도 저의 귀전에 정쟁합니다.

그때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에는 평양의 중심부이면서도 명당으로 손꼽히는 여기 만수대지구에 주요정부청사들을 많이 들어앉히는것으로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그 자리에 정부청사들을 지을것이 아니라 전쟁을 이겨낸 영웅적인 우리 인민들에게 살림집부터 세워주자고 하시었다는 것이였습니다.

지난날 서울의 한강이 바라보이는 움막에서 태어나 강변의 막돌처럼 덩굴며 살아가는 저로서는 평백성들을 위한 살림집을 국가기관들을 세워야 할 자리에 제일먼저 짓는다는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더우기 전선에서는 싸움이 한창인 때에 벌써 승리한 래일의 평양시복구건설을 위한 전람회가 열리었다는것도 놀라운 일인데 인민을 위한 살림집부터 제일 좋은 자리에 지어주자고 하시다니, 이게 바로 내가 안겨갈 조국의 품이로구나. ...

그토록 감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 못 들던 나에게 만수대지구는 뜻하지 않던 행운을 안겨주었습니다.

전후 인민군대에서 제대되어 김책공업대학(당시) 전기공학부에 입학하여 공부하던 나는 경상동일대의 대동강호안공사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공사장에서 곁곁에도 그런데 아버지수령님을 뵈다가 만나 뵈게 될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감격도 새로운 1960년 4월 완공된 대동강유보도에 나오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김책공업대학(당시) 전기공학부 학생들을 대표하여 삼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제날 전선병사의 자세로 정례를 올리는 저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밤낮이 따로없이 짧은 기간에 유보도를 멋들어지게 꾸려놓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겠다고 하시며 저의 어깨를 다정히 쓰다듬어주시었습니다.

그이께서는 끝없는 환희에 젖어있는 우리 대학생들을 둘러보시며 대동강유보도는 평양의 얼굴이나 같다고, 유보

비전향장기수 김은환

도를 잘 건설해놓으니 주변경치가 더 아름다워졌다고, 앞으로 여기 대동강반을 비롯하여 평양을 더 훌륭히 꾸려야겠다고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어 평범한 인민을 천화명당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받아안은 영광스러운 수도건설자의 한사람이 되었던것입니다.

그날에 저의 온몸에 스며들었던 수령님의 따뜻한 온기와 드넓은 대동강반을 환하게 비치던 햇빛같은 미소를 저는 순간도 잊은적이 없었으며 그 영광의 시각에 받아안은 인민사랑의 위대한 세계는 변할래야 변할수 없는 신념의 뿌리로 되었습니다.

이처럼 격동적인 건설의 나날 대동강우에는 아버지수령님께서 몸소 활달한 필체로 써주신 《옥류곡》라는 글발이 빛나는 아름다운 다리가 건설되었습니다.

런이여 평양학생소년궁전과 천리마동산, 만수대에올출구장 등이 일떠서면서 인민의 행복넘친 웃음소리가 울리는 절경중의 절경으로 전변되었습니다.

대동강반의 풍치를 한껏 돋구어주는 이름난 옥류관에도 참으로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습니다.

내가 대동강호안공사에 참가하여 청춘의 꿈과 열정을 한껏 쏟아붓고있던 1958년 8월 이른새벽 아버지수령님께서 이곳에 나오셨습니다. 뿐만 젓빛안개속으로 그림처럼 안겨드는 집집의 창문들을 한동안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몸소 배를 타고 오셨다. 오랜 시간동안 경상풀어구와 반월도사이를 오가시면서 지금의 옥류관자리를 잡아주시었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반월도앞의 한 바위우를 손으로 가리키시면서 저 바위가 옥류바위인데 예로부터 그 주변일대가 경치좋아 명당으로 불리웠다고, 저 바위우에 인민을 위한 큼직한 로리집을 하나 지어주자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후 옥류관준공을 선포한지 이틀이 되는 1960년 8월 15일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또다시 이곳에 나오셨습니다. 푸른 하늘을 떠이고 웅건하게 일떠선 옥류관을 만반에 환한 미소를 띠시며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지난날 경치좋은 곳이라고 하여 돈냥이나 있는 량반들만 기와집을 쓰고살던 여기 옥류벽우에 인민의 옥류관이 일떠섰으니 얼마나 대조적인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평양절경중에서도 최고의 명당자리에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봉사기지를 얹혀주시는것이 그러도 기쁘시어 인민의 옥류관이라 불려주시며 호랑하게 웃으시던 아버지수령님! 김일성광장의 뒤면배경으로 웅장 화려한 자태를 자랑하고있는 인민대학습당도 인민에 대한 사랑의 대기념비입니다.

수도 평양의 한복판에 풍치수려한 모란봉을 한옆에 끼고있는 남산재는 오래동안 공백으로 남아있던 곳입니다. 모란봉에 가을단풍이 절여가던 1973년 10월 어느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이곳에 오르시어 수도의 전경을 부감하시면서 남산재우에 인민을 위한 도서관을 짓자고 하시었다고 합니다.

그때 일꾼들은 모두 놀랐다고 합니다. 그 자리는 수령님께서 가렬한 전화의 그날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에

동그라미를 그으시며 특별히 중시하신 자리였기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이름난 절경이라 해도 인민이 없고 인민을 떠난 명당은 명당이 아니라는것,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곳만이 명당이라는것이 우리 수령님께서 내리신 명당에 대한 새로운 정의이며 여기에 그분의 가장 숭고한 인민에 대한 사랑의 철학이 집약되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수천년 력사의 번두리에서 온갖 천대와 멸시속에 살아오던 평범한 백성들을 나라의 참된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영원무궁한 복락의 한복판에 반들어주신 민족의 위대한 어머니에 대한 다함없는 총정과 흥미를 담아 우리 인민은 바로 그 만수대지구의 높은 언덕에 수령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였습니다.

한생 60돐을 맞으며 아버지수령님의 동상을 높이 모심으로써 만수대지구는 명실공히 수도 평양의 중심축으로, 혁명의 수도로 그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만이 아닌 세계진보적인류가 우러르는 희망의 언덕으로 빛나게 되었습니다.

어찌 만수대지구뿐이겠습니까. 백두산자락의 삼지연마을로부터 동서해안의 수많은 명승지들이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리상향으로 전변되었습니다.

수수천년 음풍영월을 읊조리는 량반부자들의 웃음소리 떠날줄 모르던 곳까지의 명당들에서 울려 퍼지는 인민의 광명한 노래소리는 그대로 로동당시대 명당의 새 노래였으며 우리 수령님과 당에 드리는 뜨겁고도 진실한 송가였습니다.

하기에 햇빛 한점 비쳐들지 않는 남녘의 차디찬 막방에서 아버지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시고 동지들과 함께 당총회를 하고 총정의 결의를 다질 때에도 나의 마음은 수령님께서서 환하게 웃으시며 서계시는 만수대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적들의 악귀같은 고문으로 살점이 찢기고 뼈가 부서져나가고 마음속에서는 내 사랑하는 평양의 노래, 영원한 인민의 명당에 대한 새 노래가 끝없이 울렸습니다.

2

내 인생의 뿌리가 내려졌고 신념의 기초로 되어준 만수대지구는 오늘 새세기 도시건설의 본보기로, 세계적인 인민의 명당으로 날날이 새롭게 변모되어가고있습니다.

내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만수대지구에 아버지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현대적인 호화거리가 일떠선다는 소식을 격정속에 듣고 저는 서둘러 그곳을 찾았습니다.

본래의 살림집들과 봉사망들이 온데 간데없이 사라지고 기초공사가 한창 벌어지는 건설장에서 나는 인민군대의 한 장령이 해주었던 감동깊은 이야기를 잊을수 없습니다.

만수대지구건설은 한평생 이민위천

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행렬차를 멈추지 않으셨던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리상이 위대한 장군님에 의해 보다 빛나게 실현되고있음을 내외에 다시금 파시하기 위한 대건설투이다.

그이께서는 우리 인민이 뜻밖에 민족의 대극상을 당하고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그때 벌써 최고사령부 작전대우에서, 달리는 야전차안에서 만수대지구를 비롯한 평양시계건전투를 구상하시고 그 준비를 하나하나 갖추어오시었다, 우리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의 력사를 더욱 빛내이고 수령님께서 그토록 념원하시던 부흥강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시기 위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총잡은 우리 병사들을 여기 만수대지구건설장으로 불러주시었다. ...

그 이야기들 들으며 저는 목이 꼭 메여울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돌아켜보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통째로 안겨주신 만수대지구를 참으로 아끼고 사랑해주었습니다.

언제인가 일꾼들이 경치아름다운 대동강반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휴식을 위해 자그마한 집 한채를 마련해드리었다고 합니다.

그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들을 엄하게 질책하시며 당장 그 집을 없애 버리라고 하시었습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애써 가꾸어주신 인민을 위한 명당자리이기에 그 누구는 단 한치의 침범도 허용하지 않은 신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던 그 어려운 시절에도 만수대지구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돌려주시었습니다.

아직은 세멘트 한줌, 철근 한토막이 귀중하던 때였지만 여기 만수대지구에 있는 모란봉극장과 옥류관이 높은 수준에서 훌륭히 개건되어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옥류관과 추어나란히 희귀한 철갑상어와 자라고기를 맛볼수 있는 로리전문식당을 새로 일떠세워 인민들을 위해 통째로 안겨주시었습니다.

모란봉기슭에 새롭게 개건된 개선청년공원에서 뿔어져나오는 희한한 불야경과 최상급의 호화로운 유희기구를 마음껏 타보면서 웃고 떠드는 인민들의 밝은 모습도, 주체사상탑을 배경으로 대동강의 한복판에 솟추는 분수의 희한한 광경도 만수대지구를 인민의 절승경개의 본보기로 더 잘 꾸려주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꿈과 포부에 반들러 꽃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하싯듯 또다시 세상에 보란듯이 인민을 위한 호화거리를 일떠세우실 담대한 선언을 하시었으니 우리 장군님께서 지니신 심중의 깊은 뜻은 과연 무엇이였겠습니까.

우리 수령님께서 전후 처음으로 인민이 살게 될 아파트를 일떠세워주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던 그 만수대지구, 인민의 무궁번영과 행복한 미래를 손들어 가리키시며 오늘도 거룩하신 모습으로 높이 서계시는 아버지수령님을 우러러 우리 인민과 온 겨레가 끝없이 찾아오는 숭엄한 언덕...

우리 수령님께서 생전에 풀어오신 인민에 대한 사랑의 세계가 그 어디보다 력력히 굳어지는 곳이기도 만수대지구를 수령님의 리상이 더욱 활짝 꽃피어나고 인민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호화거리로 완성해주시려는것이 장군님의 결심이고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인민의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는 력사의 문어구에서 아버지수령님 동상을 높이

모신 만수대지구에 제일먼저 세상을 경탄케 하는 황홀한 호화거리를 일떠세워주시는것 아니겠습니까.

명당자리인 만수대지구에 단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거리를 건설하는데 드는 로력과 자재는 엄청난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국가가 손해를 보더라도 수지타산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곧 최상의 리득금이라고 하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세상에 시 제일 좋은 자재와 설비를 만수대지구건설에 최우선 보장해줄때 대한 특별조치를 취해주시었습니다.

새로 일떠서는 인민궁중에 새겨진 사연은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입니까.

우리 수령님께서 생전에 인민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축물들을 많이 건설하도록 하시었는데 수령님 가까이에 인민궁중을 훌륭하게 건설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수령님을 뵈오러 오는 인민들을 이 세상 제일 훌륭한 궁중으로 물결쳐호르케 하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던 우리 장군님이십니다.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세계 1등급의 거리로 일떠서는 만수대지구를 백화만발한 명소로 만드시기 위해 수도를 하시었다니 참으로 그이는 세계적인 명당의 위대한 창조자이십니다.

지난 9월 온 나라 인민들이 공화국창건 63돐을 맞는 환희에 젖어있던 그 시각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만수대지구건설장을 찾으셨습니다.

몇달사이엔 본래의 모습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희한하게 그지없는 멋쟁이거리로 변모되고있는 만수대지구를 오래동안 돌아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못내 기뻐하시며 건설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주시었다고 합니다.

멀지 않아 만수대지구는 초고층호화살림집으로부터 각종 봉사망과 문화시설이 최고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갖추어진 명당중의 명당으로 전변되어 우리 인민은 세상에 없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는 나름대로의 력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시와 거리들이 많습니다.

이끼푸른 력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신전과 성당, 옛 궁전의 거리도 있고 마천루의 거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수대지구와 같이 철저히 인민이 주인이고 인민을 위한 그런 호화거리는 없습니다.

역만장자들의 방랑한 향락은 있어도 절대다수의 비애와 눈물이 흐르는 곳, 통치배들의 탐욕과 유희는 있어도 인민대중의 품을 어지럽히지 않는 곳이 내가 세상에서 보아온 《명당》이였습니다.

내가 태어나 자란 남조선만 보더라도 명당으로 불리울만 한 곳은 메의없이 인민이 쫓겨나고 특권층속속들이 독차지하였습니다.

산천경계가 아름답고 풍치수려한 곳이라면 의례히 부자들이 등지를 들고 앉았으며 그 무슨 《신도시개발》지역의 호화주택들은 그 값이 천문학적역수에 달하여 한줌도 못되는 특권층에게만 문을 열어주고있습니다.

말그대로 남조선을 비롯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명당은 인민이 쫓겨우는 땅, 눈물과 저주의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민의 명당, 이것은 오직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그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모든것을 봉공시키며 이것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인민에 대한 사랑의 최고결정체입니다.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손들어 가리키시는 아버지수령님 동상을 높이 모신 내 나라의 명당인 만수대지구에 솟아오르는 인민제일주의, 인민만세의 별천지가 온 나라에 펼쳐지고있습니다.

정녕 세상은 넓고 절경은 많아도 사회주의의 내 조국이야말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품속에서 인민이 길이 복락하는 영원한 인민의 명당입니다.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과 복무를 천하지대본으로 여기는 자기수령, 자기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진실한 총정을 받들러 내 나라 사회주의명당의 아름다움은 온 누리에 더욱 빛을 뿌리게 될것입니다.



